

■ [공통: 독서·문학]

01. ② 02. ⑤ 03. ① 04. ② 05. ④ 06. ⑤ 07. ⑤ 08. ② 09. ① 10. ④
 11. ③ 12. ① 13. ③ 14. ① 15. ② 16. ③ 17. ④ 18. ① 19. ② 20. ④
 21. ⑤ 22. ⑤ 23. ④ 24. ① 25. ③ 26. ④ 27. ⑤ 28. ③ 29. ④ 30. ②
 31. ④ 32. ② 33. ⑤ 34. ③

[1~3] 독서

[1~3] 독서 이론, '독서 동기의 두 유형'

지문해설 : 이 글은 슈츠가 제시한 동기의 두 유형인 '때문에 동기'와 '위하여 동기'를 바탕으로 독서 동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독서의 '때문에 동기'는 독서 행위를 하게 만든 이유로 독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건이나 경험과 관련되고, '위하여 동기'는 독서 행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독서 이후의 상태에 대한 기대나 예측과 관련된다. 독서 습관은 '때문에 동기'와 '위하여 동기'를 바탕으로 독서 행위를 시작하고, 성공적인 독서 경험이 새로운 독서 행위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주제] 독서 동기의 두 유형과 독서 습관의 형성 과정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 따르면 슈츠가 동기를 '때문에 동기'와 '위하여 동기'의 두 유형으로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슈츠가 동기의 두 측면을 합쳐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선생님의 권유나 친구의 추천, 자기 계발 등 독서를 하게 되는 동기는 다양하다고 하였다. ③ 3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독서 습관을 형성하려면 우선 독서 행위를 시작하는 것과 독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④ 1문단에서 독서 동기는 '독서를 이끌어 내고, 지속하는 힘'으로 정의된다고 하였다. 독서를 이끌어 내는 힘이 독서를 시작하게 하는 힘에 해당하고, 독서를 지속하는 힘이 독서를 계속하게 하는 힘에 해당한다. ⑤ 3문단 첫 문장에서 '이러한 동기 개념', 즉 '때문에 동기'와 '위하여 동기' 개념은 독서 습관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2.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학생의 메모에서 ㉠(학교에서 ‘한 학기에 책 한 권 읽기’ 과제를 받았다)는 독서 행위를 하게 만든 이유로, 독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건이나 경험과 관련되므로 독서의 ‘때문에 동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철학에 대해 많이 알게 되겠지)와 ㉢(어려운 책을 읽어 냈다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을 거야)는 독서 행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독서 이후의 상태에 대한 기대나 예측과 관련되므로 독서의 ‘위하여 동기’에 해당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위하여 동기’가 아니라 ‘때문에 동기’에 해당한다. ② ㉡는 ‘때문에 동기’가 아니라 ‘위하여 동기’에 해당한다. ③ ㉢은 ‘때문에 동기’에 해당하지만 ㉣은 ‘위하여 동기’에 해당한다. ④ ㉤은 ‘때문에 동기’에 해당하지만, ㉥은 ‘위하여 동기’에 해당한다.

3. 내용 해석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3문단에서 독서 행위를 통해 즐거움과 유익함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책을 더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그러한 마음은 새로운 독서 행위로 연결된다고 하였다. 즉, ㉠(독서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해 ㉡(독서의 즐거움과 유익함)을 경험하면 새로운 독서 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 ㉢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서 성공적인 독서 경험의 핵심은 독서 행위(㉠)를 통해 즐거움과 유익함(㉡)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③ 3문단에서 독서 행위를 통해 즐거움과 유익함(㉡)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책을 더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그러한 마음은 새로운 독서 행위(㉣)로 연결된다고 하였다. ④ 3문단에서 성공적인 독서 경험의 핵심은 독서 행위를 통해 즐거움과 유익함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독서의 즐거움과 유익함(㉡)이 독서 행위(㉠)의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문단에서 독서의 즐거움과 유익함은 새로운 독서 행위를 통해 다시 경험하고 싶어지는 ‘위하여 동기’가 되기도 한다고 하였고, 2문단에서 독서의 ‘위하여 동기’는 독서 행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이 ㉣의 결과인 동시에 새로운 ㉣의 목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의 ‘이러한 선순환’이란 ㉠, ㉡, ㉢의 선순환을 말한다. 3문단에서는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 독서 경험이 반복되고 심화되면서 독서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하였다.

[4~7] 독서

[4~7] 사회, ‘공포 소구에 대한 연구’

지문해설 : 이 글은 공포 소구에 대한 재니스와 레벤달의 연구, 그리고 이들의 연구를 종합하여 위티가 도출해 낸 결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니스는 세 가지 수준의 공포 소구 중 중간 수준의 공포 소구가 가장 큰 설득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레벤달은 공포 소구의 효과가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만이 아니라 인지적 반응과도 관련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한 위티는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를 좌우하는 두 요인으로 위협과 효능감을 설정한 후, 이 두 요인의 수준에 따라 위험 통제 반응과 공포 통제 반응이 달리 작동하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주제] 공포 소구에 대한 연구의 전개 과정과 그 내용

4.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이 글에서는 공포 소구에 대한 재니스와 레벤달, 그리고 위티의 연구를 설명하고 있다. 재니스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에 주목하였고, 레벤달은 재니스의 연구가 인간의 감정적 측면에만 치우쳤다고 비판하였으며, 위티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이 글에서 화제, 즉 공포 소구에 대한 연구들을 선행 연구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글에서는 재니스, 레벤달, 위티의 공포 소구에 대한 연구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연구들이 시작된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에서는 공포 소구 연구의 진척을 재니스, 레벤달, 위티의 연구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공포 소구 연구들을 분류하는 기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에서는 위티의 결론이 그간의 공포 소구 이론을 통합한 결과라는 점에서 후속 연구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는 의의를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따라서 공포 소구에 대해 남겨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이 글에서는 공포 소구에 대한 연구들이 봉착했던 난관과 그 극복 과정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레벤달은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하면 수용자가 공포 소구의 권고를 따르게 된다고 하였고, 4문단에 따르면 위티는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모두 높을 때 이러한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3문단에 따르면 위티는 위협의 수준이 높으려면 수용자가 공포 소구에 담긴 위험이 자신이 겪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정도가 크다고 느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위티는 수용자가 공포 소구에 담긴 위험을 느끼지 않으면 위협의 수준이 낮게 되고, 그러면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하지 않아 수용자가 공포 소구의 권고를 따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재니스는 수용자에게 공포 소구를 세 가지 수준으로 달리 제시하는 실험을 통해 중간 수준의 공포 소구가 가장 큰 설득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재니스가 공포 소구의 수준을 달리하며 수용자의 변화를 살펴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에 따르면 레벤달은 공포 소구의 효과가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만이 아니라 인지적 반응과도 관련된다고 보고 재니스의 연구가 감정적 측면에만 치우쳤다고 비판하였다. 이를 통해 레벤달이 재니스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과 인지적 반응을 모두 고려하여 살펴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하면 수용자들이 공포 소구의 권고를 따르게 되지만,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하면 오히려 두려움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공포 소구에 담긴 위험을 무시하려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레벤달이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가 나타나려면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해야 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수용자가 공포 소구에 담긴 위험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위협의 수준이 달라지고, 수용자가 공포 소구에 담긴 권고를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효능감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위티가 위협과 효능감이라는 두 요인의 수준을 서로 연관하여 설명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보기>의 집단 3은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하였고, 집단 4는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하였다. 4문단을 통해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모두 높으면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하고, 위협의 수준은 높지만 효능감의 수준이 낮으면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집단 3은 효능감의 수준이 높고, 집단 4는 효능감의 수준이 낮았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보기>의 집단 1은 공포 소구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 4문단에서 위협의 수준이 낮으면 공포 소구에 대한 반응이 없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집단 1은 위협의 수준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 ② <보기>의 집단 3은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하였으므로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모두 높았음을 알 수 있다. ③ <보기>의 집단 4는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하였으므로 위협의 수준은 높지만 효능감의 수준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 ④ <보기>의 집단 2는 공포 소구에 대한 반응이 없었으므로 위협의 수준이 낮았고, 집단 4는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하였으므로 위협의 수준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7.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기여(寄與)하다’는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영향을 주다’에서의 ‘주다’는 ‘도움’이 되게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여하다’는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편향(偏向)되다’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다.’라는 뜻으로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② ‘명명(命名)하다’는 ‘사람, 사물, 사건 따위의 대상에 이름을 지어 붙이다.’라는 뜻으로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③ ‘경험(經驗)하다’는 ‘자신이 실제로 해 보거나 겪어 보다.’라는 뜻으로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④ ‘발송(發送)하다’는 ‘물건, 편지, 서류 따위를 우편이나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보내다.’라는 뜻으로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8~11] 독서

[8~11] 과학기술, ‘고체 촉매의 구성 요소’

지문해설 : 이 글은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물질인 촉매가 화학 산업에서 사용될 때의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체 촉매는 대부분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제로 구성되는데, 활성 성분은 그 표면에 반응물을 흡착시켜 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물질이다. 고체 촉매에서는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촉매 활성이 높아진다. 한편 고온에서는 금속 원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큰 입자를 이루는 소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지체는 소결 현상으로 인해 활성 성분의 표면적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요소이다. 또한 증진제는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를 변화시켜 소결을 억제하거나, 전자 밀도를 변화시켜 흡착 세기를 조절하는 등 활성을 조절하는 요소이다.

[주제] 고체 촉매의 구성 요소와 촉매 활성 조절의 원리

8.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 따르면 화학 산업에서 고체 촉매가 주로 이용되는 이유는 액체나 기체인 생성물을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체 촉매는 기체 생성물과 촉매의 분리 공정이 필요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촉매는 촉매가 없을 때와는 활성화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촉매를 이용하면 화학 반응이 새로운 경로로 진행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2문단에 따르면 고체 촉매의 촉매 작용에서는 반응물이 먼저 반응하여 생성물로 변환된 후, 생성물이 표면에서 탈착되는 과정을 거쳐 반응이 완결된다. 그러므로 고체 촉매에 의한 반응은 생성물의 탈착을 거쳐 완결된다

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2문단에 따르면 암모니아 합성 과정에서 수소와 질소가 철의 표면에 흡착되어 각각 원자 상태로 분리되며, 흡착된 반응물은 전자를 금속 표면의 원자와 공유하여 안정화된다. 그러므로 암모니아 합성 과정에서 철 표면에 흡착된 수소는 전자를 철 원자와 공유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4문단에 따르면 고체 촉매는 활성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증진제나 지지체를 포함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므로 증진제나 지지체 없이 촉매 활성을 갖는 고체 촉매가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9. 대안, 방안에 대한 적절성 탐구

정답해설 : 2문단에서 고체 촉매에서는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반응물의 흡착이 많아 촉매 활성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므로, 반응물을 흡착하는 금속 원자의 개수를 늘리는 것은 촉매 활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 따르면 입자가 소결되면 금속 활성 성분의 전체 표면적은 줄어든다. 소결이 일어나면 촉매 활성이 저하되므로, 소결을 촉진하는 것은 촉매 활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1문단에 따르면 촉매 활성은 반응물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응물의 반응 속도를 늦추는 것은 촉매 활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1문단에 따르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가 많아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할 경우 반응이 느려지므로,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하는 금속을 사용하는 것은 촉매 활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활성 성분의 금속 입자들이 뭉쳐져 큰 입자를 이루는 것을 소결이라 한다. 입자가 소결되면 촉매 활성이 저하되므로, 금속 입자들을 뭉치게 하여 크게 만드는 것은 촉매 활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10.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서 실리카는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실리카의 표면에 금속 입자를 분산한다고 하였다. 3문단에 따르면 작은 금속 입자들을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지지체에 분산하면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가 억제된다. 따라서 지지체인 실리카는 낮은 온도에서 활성 성분을 소결하는 것이 아니라,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를 억제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아세틸렌은 화학 반응을 통해 에틸렌으로 변환이 된다. 2문단에 따르면 화학 반응을 하기 전의 물질을 반응물이라고 하고, 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된 물질을 생성물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아세틸렌은 반응물에 해당한다. ② <보

기>에서 수소는 팔라듐 표면에 흡착되어 반응한다. 2문단에서 활성 물질은 반응물을 흡착시켜 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물질이라고 하였으므로, 수소를 흡착시키는 팔라듐은 활성 성분에 해당한다. ③ <보기>에서 규소는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를 변화시켜 소결을 억제하고, 은은 전자의 밀도를 변화시켜 흡착 세기를 조절한다. 4문단에서 증진제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므로 규소와 은은 모두 증진제에 해당한다. ⑤ <보기>에서 실리카는 지지체에 해당한다. 지지체는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11.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흡착이 약하면 흡착량이 적어 촉매 활성이 낮으며, 흡착이 너무 강하면 흡착된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되어 표면에서의 반응이 느려지므로 촉매 활성이 낮다. ㉠에 흡착되는 경우 흡착 세기가 너무 강하여 촉매 활성이 낮아지므로 ㉠에 흡착될 때보다 안정화되는 정도가 더 크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에 흡착되는 경우 ㉠에 흡착될 때에 비해 촉매 활성이 높고 흡착 세기도 강하다. 촉매 활성이 높다는 것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 ㉡를 활성 성분으로 할 때 ㉠를 활성 성분으로 사용할 때보다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 ② ㉢에 흡착되는 경우 ㉠에 흡착될 때에 비해 촉매 활성이 높고 흡착 세기도 강하다. 흡착 세기가 강하면 흡착량이 많아 촉매 활성도 높으므로, ㉠가 ㉢에 흡착될 때가 ㉠에 흡착될 때보다 흡착량이 더 많다. ④ ㉢에 흡착되는 경우 ㉡에 흡착될 때에 비해 촉매 활성이 높고 흡착 세기도 강하다. 그러므로 ㉠는 ㉡보다 ㉢에 더 강하게 흡착된다. ⑤ ㉠에 흡착되는 경우 흡착 세기가 너무 강하여 촉매 활성이 낮아지므로 화학 반응에서 촉매 활성만을 고려하면 가장 적합한 활성 성분은 ㉠가 아니라 ㉢이다.

[12~17] 주제 통합

[12~17] 인문, (가) 심리 철학에서 의식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관점 / (나) 체험으로서의 지각

지문해설 : (가)는 심리 철학의 동일론과 기능주의, 그리고 ‘설’의 기능주의 비판을 소개한 후, 인지 과정을 몸 바깥으로까지 넓혀 설명한 로랜즈의 확장 인지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보는 반면,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므로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한편 ‘설’은 이러한 기능주의에 대해 ‘중국어 방’ 사고 실험을 통해 동일한 기능이 구현되더라도 의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동일론, 기능주의, 설의 이론은

모두 의식의 문제를 몸의 내부에 한정된 논의들이었다. 반면, 로랜즈의 확장 인지 이론은 의식의 하나인 '인지'가 확장되는 과정을 통해 의식의 문제를 몸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바깥으로까지 넓혀 설명하였다.

[주제] 동일론, 기능주의, '설'의 사고 실험과 달리 의식의 문제를 몸 바깥으로 확장시켜 이해한 로랜즈의 확장 인지 이론의 의의

지문해설 : (나)는 객관주의 철학의 지각 이론에 대해 비판하고 지각은 몸의 체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각은 몸의 감각 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객관주의 철학의 한 입장은 의식을 물질로 환원하여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다른 한 입장은 의식을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 실체로 규정하여 의식과 물질의 본질적 차이를 주장한다. 이처럼 객관주의 철학의 두 입장은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한다. 하지만 (나)의 필자는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으로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지각의 얽힘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이 비로소 확정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내 몸의 체험이라는 것이다.

[주제]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하는 객관주의 철학에 대한 비판과 몸의 체험으로서의 지각에 대한 주장

12.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1문단에 따르면 기능주의는 의식이 기능이라고 주장하며, 이때 기능이란 입력과 출력의 함수적 역할로 정의된다. 또한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설'은 '중국어 방' 사고 실험을 통해 기능이 같으면서 의식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주의를 비판한다. 즉 '설'은 의식과 기능이 같다는 기능주의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의식과 함수적 역할'이 ㉠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객관주의 철학은 지각을 사물로부터의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으로 이해하거나, 감각된 사물에 대한 주체 즉 의식의 판단으로 이해한다. 이에 대해 (나)의 4문단에서 필자는 지각이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내 몸의 체험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내 몸의 체험'이 ㉡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는 지각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을 비판하며 4문단에서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물질적 반응'이 ㉡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1문단에 따르면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본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설'은 기능이 같으면서 의식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주의를 비판한다. '설'의 비판 대상은 의식과 뇌의 상태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동일론이 아니라 의식과 기능이 같다고 주장하는 기능주의이므로, '의식과 뇌의 상태'가 ㉡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나)의 4문

단에 따르면 필자는 지각이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의식의 판단’이 ㉔에 들어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④ (가)의 1문단에 따르면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본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설’은 기능이 같으면서 의식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주의를 비판한다. ‘설’의 비판 대상은 의식과 뇌의 상태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동일론이 아니라 의식과 기능이 같다고 주장하는 기능주의이므로, ‘의식과 뇌의 상태’가 ㉔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의 1문단에 따르면 기능주의는 의식이란 기능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때 기능이 같다는 것은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즉 기능주의의 주장은 입력과 출력의 쌍이 같으면 의식 역시 같다는 것이지 입력과 출력이 같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력과 출력’이 ㉔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나)의 4문단에 따르면 필자는 지각이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의식의 판단’이 ㉔에 들어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13.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4문단에 따르면 로랜즈는 기억이나 믿음과 같은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몸 외부로 확장된다고 본다. 따라서 로랜즈는 기억이 주체의 몸 바깥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볼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본다. 따라서 동일론자들은 뇌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②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설’은 중국어로 된 입력에 대해 중국어로 된 출력을 내놓는다고 해서 ‘중국어 방’ 안의 사람이 중국어를 아는 것이 아니며, 이는 기능이 같더라도 의식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았다. 따라서 ‘설’은 중국어로 된 입력에 대해 중국어로 된 출력을 내놓는 동일한 기능을 하더라도 ‘중국어 방’ 안의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과 중국어를 아는 사람의 의식은 다르다고 볼 것이다. ④ (가)의 4문단에 따르면 로랜즈에게 인지 과정은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로랜즈는 인지 과정이 파생적 상태를 조작하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볼 것이다. ⑤ (가)의 4문단에 따르면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전자적 신호가 나열된 상태로서 파생적 상태이며, 주체에 의해 열람된 후에도 여전히 파생적 상태이다. 따라서 로랜즈는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가 그 자체로는 심적 상태가 아니라 파생적 상태라고 볼 것이다.

14.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정답해설 :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며,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 있다. 즉, 지각이 일어난 이후 주체와 대상이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에 따르면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에 이어진 내용에서도 로랜즈는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고 하였다. 이는 인지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전제하고 주체에 의해 인지가 일어난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나)의 필자는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에 대해,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전제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할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나)의 2문단에 따르면 객관주의 철학은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거나 의식을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 실체로 보아 의식과 물질의 본질적 차이를 주장한다. 이처럼 객관주의 철학은 전자든 후자든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한다. 이에 대해 (나)의 3문단에서 필자는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라는 점에서 객관주의 철학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필자는 의식이 세계를 구성하는 독자적 실체라는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을 근거로 ㉠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객관주의 철학의 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나)의 필자는 이는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하는 입장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므로 (나)의 필자는 의식이 물질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근거로 ㉠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 ㉠에 따르면 로랜즈는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적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의 확장적 인지 과정이란 외부의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즉 로랜즈는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 (나)의 3문단에 따르면 (나)의 필자는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통해서만 지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해 ㉠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15.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나)의 3문단에 따르면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얽힘의 순간에 나는 주체와 대상을 확연히 구분한다. 그리고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 있다. 즉 주체와 대상이 확정되기 이전에 나타나는 지각의 얽힘은 곧 감각의 얽힘이다. 따라서 지각과 감각이 구분되지 않는 이유는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얽힘의 작용이 곧 지각이기 때문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는 객

관주의 철학의 입장은 감각과 지각이 모두 물질세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하지만 감각을 사물로부터의 자극으로, 지각을 이에 대한 주체의 물질적 반응으로 이해하여 감각과 지각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감각과 지각이 모두 물질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감각과 지각이 구분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다. ③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지각은 몸의 감각 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이며, 4문단에 따르면 지각은 내 몸의 체험이다. 따라서 감각과 지각 모두 몸에 의해 이루어진다. ④ (나)의 필자는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의식으로서의 주체를 전제하여 지각을 이해하는 것은 ㉠의 이유가 될 수 없다. 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얽힘의 순간, 즉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일어난 이후 주체와 대상이 분리된다. 즉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기 이전에 감각과 지각은 구분되지 않는다.

1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가)의 4문단에 따르면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함이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내지만, 파생적 상태는 주체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로 정의된다. 또한 로랜즈에게 인지 과정이란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한편 <보기>의 A는 사물에 부딪친 막대기의 진동을 통해 사물의 위치를 지각한다. 따라서 암실 내 부딪친 막대기의 진동이 A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막대기의 진동 상태는 파생적 상태이며, A가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막대기의 진동 상태를 조작하여 사물의 위치에 대한 심적 상태가 생겨나는 인지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막대기의 진동 상태가 파생적 상태가 아니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기능주의는 의식을 기능으로 보며, 이때 기능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이다. 또한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능주의에 따르면 A와 B가 동일한 사물의 위치를 묻는 질문, 즉 동일한 입력에 대해 동일한 대답, 즉 동일한 출력을 내놓는다면 기능이 동일하므로 A와 B의 의식 역시 차이가 없다.

② (가)의 4문단에 따르면 로랜즈의 확장 인지 이론에서 인지 과정이란 주체에게 믿음이나 기억과 같은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이에 따르면 BCI로 암실 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B의 인지 과정인 경우, B에게 사물의 위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심적 상태가 생겨날 것이다.

④ (나)의 4문단에 따르면 지각은 나의 몸에 의해 이루어지며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모두 나의 몸이다. 따라서 막대기에 의해 A가 사물의 위치를 지각하는 경우, 지각이 이루어지게 한 막대기는 A의 몸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는 입장에서는 지

각을 사물로부터의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BCI를 통해 입력된 정보로부터 B의 지각이 일어난 경우 BCI를 통해 들어온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인 B의 물질적 반응이 일어난 것이다.

17.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㉔의 ‘알아보다’는 ‘조사하거나 살펴보다.’라는 뜻을 지니므로, ‘단어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을 펼쳤다.’의 ‘알아보다’와 문맥상 의미가 유사한 단어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㉑ ㉔의 ‘보다’는 ‘대상을 평가하다.’의 뜻을 지니지만, ‘그간의 사정을 봐서 그를 용서해 주었다.’의 ‘보다’는 ‘상대편의 형편 따위를 헤아리다.’의 뜻을 지니므로 문맥상 의미가 유사하지 않다. ㉒ ㉔의 ‘일어나다’는 ‘어떤 일이 생기다.’의 뜻을 지니지만, ‘이사 후에 가난하던 살림살이가 일어났다.’의 ‘일어나다’는 ‘약하거나 희미하던 것이 성하여지다.’의 뜻을 지니므로 문맥상 의미가 유사하지 않다. ㉓ ㉔의 ‘따르다’는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의 뜻을 지니지만, ‘개발에 따른 자연 훼손 문제가 심각해졌다.’의 ‘따르다’는 ‘어떤 일이 다른 일과 더불어 일어나다.’의 뜻을 지니므로 문맥상 의미가 유사하지 않다. ㉕ ㉔의 ‘만지다’는 ‘손을 대어 여기저기 주무르거나 쥐다.’의 뜻을 지니지만, ‘그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법 만질 줄 안다.’의 ‘만지다’는 ‘물건을 다루어 쓰다.’의 뜻을 지니므로 문맥상 의미가 유사하지 않다.

[18~21] 문학

[18-21] 고전산문 - 작자 미상, ‘상사동기’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작중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영영전」, 「회산군전」으로도 불리는 한문 애정 소설이다. 조선 후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작품의 제목이자 배경인 ‘상사동’은 영영의 이모이자 김생을 도와주는 노파가 사는 동네의 지명이다. 뛰어난 재주를 가진 선비 김생과 궁녀 영영이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비교적 현실성 있게 그려 낸 점에서 소설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 신분을 뛰어넘는 남녀의 열렬한 사랑

18.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막동이 생에게 계책을 말하는 부분에서, ‘한 식경 후’, ‘날이 저물 때쯤’, ‘오늘’, ‘내일’, ‘다음 날’, ‘그다음 날’과 같은 시간 표지를 사용하여 사건의 추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생이 노파에게 말하는 부분에서 ‘모월 모일’, ‘그날’과 같은 시간

표지를 사용하여 생이 마음을 상심하며 애태우고 있는 사건의 추이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막동이 생에게 계책을 말하는 부분에서 ‘~ 하시면 ~ 하지요.’, ‘~면 ~ 것입니다.’와 같은 표현과, 노파가 생에게 방법을 말하는 부분에서 ‘~한다면, ~있을 것입니다.’ 등과 같은 앞날의 일에 대한 가정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것은 인물 간 갈등의 심화를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막동의 ‘낭군께선 늘 언행이 ~ 거침없으시더니’, 노파의 ‘자색이 고운 것은 ~ 다를 게 없지요.’ 등에서 인물에 대한 논평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갈등의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④ 노파가 ‘이 애는 회산군 ~ 말미를 얻었기 때문이지요.’에서 인물의 내력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격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⑤ 노파의 ‘하동의 사자후보다 심하여’라는 말에서 회산군 댁 ‘부인’의 성격을 고사에 빗대어서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인물의 성격에 대한 설명에 그치며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지는 않다.

19.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그래서 손님을 전별한다며 할멈을 번거롭게 한 것이네.”는 생의 말이며, 노파가 이에 동의를 표하거나 스스로 번거로움을 호소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막동이 생에게 “말 못할 근심이 있는 듯하옵니다. 사모하는 이라도 있으신지요?”라고 말하는 것에서 생의 근심이 사모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막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생이 자신이 첫눈에 반한 남자에 대해 노파에게 말하자 노파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가 ‘문득 깨닫고’는 자색이 고운 여인이 ‘바로 죽은 제 언니의 딸’이라고 말하였다. ④ 노파는 생의 사연을 듣고 ‘몹시 애처로워했으’며, 영영에 대해 ‘바로 죽은 제 ~ 자는 난향이죠.’, ‘이 애는 회산군 댁 ~ 말미를 얻었기 때문이지요.’와 같이 자신이 아는 바를 생에게 알려 주었다. ⑤ 생이 ‘할멈 말대로 된다면 야 ~ 천상의 7월 7일이 되겠소’라고 말한다. 이로부터 영영을 만나는 일의 기쁨을 천상의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은 ‘흉금을 털고 말하’게 되므로 ㉠이 이루어지면 생은 노파에게 속내를 드러낼 기회를 얻게 된다. 한편, ㉡이 이루어지면 생은 영영과 만나려는 ‘낭군의 뜻’을 이루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생은 ㉠에 대해 ‘진정 그럴듯하다 여기고 기뻐하며’, ‘내 일이 잘 되겠구나’라고 반응한다. 그리고 ㉡에 대해서는 ‘기뻐하며’, ‘할멈 말대로 된다면야 ~ 천상의 7월 7일이 되겠소’라고 반응한다. 따라서 생은 ㉠과 ㉡에 대해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과 ㉡은 모두 생의 의도를 숨기고 있기는 하나, 그것은 도모하는 일의 성공을 위한 것이다. ㉠은 생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 상황의 급박함을 부각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리고 ㉡을 실행하며 노파는 생에게 ‘때를 기다렸다가 오시지요.’라고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급박함을 부각하는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은 생을 위해 막동이 제안한 것이며, 생이 이를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은 생의 제안이 아니라 노파가 제안한 것이다. ⑤ ㉠에서 생은 ‘미인이 머문 집’의 주인인 노파에게 접근하기 위해 ‘손님’이라는 가상의 존재를 내세운다. 그러나 ㉡에서 생은 영영과의 만남을 위해, 노파가 죽은 언니의 제사상을 차리고 영영이 그곳에 오도록 하는 일에 동조하고 있을 뿐 권력자의 위세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다.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노파는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서사 진행에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에 해당한다. 노파는 생과 영영의 만남을 돕기 위해 ‘단오’ 때, 죽은 언니의 제사상을 차려 영영이 제사에 올 수 있도록 회산군 부인의 허락을 구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을 듣고 생은 “인간의 5월 5일이 천상의 7월 7일이 되겠소!”라고 기뻐하며 동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감상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생은 첫눈에 반한 영영과의 애정을 추구하면서 영영을 만나기 위해 막동과 노파의 제안에 화답하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생이 감정에 매우 충실한 성격을 가진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보조적 인물인 막동과 노파는 주인공인 생과 영영이 애정을 성취할 수 있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나서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건에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의 등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생은 ‘길에서’ 우연히 영영을 마주치고 ‘할멈의 집’까지 뒤따르는데, 이러한 공간은 모두 일상에 밀착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건 전개가 일상적 공간 속에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영영은 회산군 댁 시비로서 ‘궁에서 나고 자라 문 앞길도 밟지 못한 지 오래’되었으며, 노파는 생이 그녀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두 인물의 만남이 어려운 원인을 여성 주인공의 신분적 한계에서 찾아 애정 성취에 곤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22~26] 문학

[22-26] 갈래복합 - (가) 권호문, ‘한거십팔곡’ / (나) 김낙행, ‘기취서행’

지문해설 : (가)는 총 19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로, 사대부인 작가가 겪은 공명과 은거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소되는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 <제2수>부터 <제7수>까지는 공명과 은거 사이의 내적 갈등을, <제8수>부터 <제13수>까지는 자연 속에서의 은거하는 삶을 선택한 후의 모습을, <제14수>부터 <제19수>까지는 내적 갈등의 극복을 통한 정신적 성숙을 노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대 사대부들의 현실 세계와 강호에 대한 인식, 이에 따른 대응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주제] 공명과 은거 사이의 갈등과, 한가로운 강호의 삶에 대한 긍정

(나)의 글쓴이는 껍질을 벗긴 삼대인 겨릅을 더 가지고자 사람들과 이전투구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욕에 마음을 빼앗겨 의리를 지키지 못했던 스스로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글쓴이는 탐욕에서 벗어나 본심을 회복했을 때의 상태를 대취했다가 술이 막 깼을 때로 비유하고, 맹자와 이극이 한 말처럼 궁핍해도 의를 잃지 않으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살펴보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주제] 이욕에 사로 잡혀 의리를 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

2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E]에서 글쓴이는 ‘마치 술에서 막 깨어난 사람이 잔뜩 취했을 때를 되짚어 생각하는 듯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겨릅을 얻어 오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의리를 잠시 잊었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서는 ‘어조’를 대상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조’를 한가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B]에서는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 이동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화자는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누워 세상일에 대해 번잡한 마음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인간과 자연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③ [C]에서는 성현의 삶이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을 뿐 성현의 말을 인용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④ [D]에서는 취서사에서 겨릅을 구해 오기까지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을 뿐 점층적 표현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중요성을 드러낸 부분 역시 확인할 수 없다.

2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백세’는 백 년을 의미한다. 화자는 세월이 빠르니 백 년도 길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 속에서 한가로움을 즐기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백세’를 통해 흘러간 시간이 길다는 의미를 드러낸 것도,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한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화자는 평생에 원하는 것이 충효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은 충효를 중요하게 여겨 온 것이 화자의 인생을 모두 포괄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화자는 충효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십 년을 허둥지둥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십재(십 년)’는 충효를 실현하려고 애쓴 세월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만고’는 유구한 세월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화자는 성현의 가신 길이 유구한 세월 동안 한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성현의 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십 년 전’은 진세, 즉 번거로운 세속의 일에 대한 일념이 가득 차 있던 과거의 시절을 가리키므로 현재 자연에서 여유를 느끼는 상황과 대비되는 시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4.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화자는 <제3수>의 ‘임천이 좋으니라’에서 자연과 벗하며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제1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여’는 충효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충’의 실천은 임금을 제대로 보필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임천’으로 대변되는 삶, 즉 속세를 멀리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과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제3수>의 ‘너를 좇으려’ 했던 것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제8수>의 ‘출’하는 것은 세속을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므로 ‘너를 좇으려’했던 태도가 ‘출’하는 모습으로 실현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제8수>의 명철 군자가 즐기는 ‘이것’은 ‘출하면 치군택민 처하면 조월경운’하는 삶이다. ‘치군택민’은 ‘충’을 다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을 즐기나니’에 <제1수>의 ‘이 두 일’ 즉 충과 효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제13수>의 ‘달 아래 누’운 것은 자연 속에서 한가로움을 즐기는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제3수>의 ‘절로 한가하였’던 것은 화자가 아니라 무심한 어조의 모습으로 화자는 이를 부러워하여 ‘조만간 세상일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다. 즉 화자는 <제3수>에서 물고기와

새의 한가로운 삶을 부러워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제17수>에서 화자는 ‘아무 덴들’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성현이 추구한 도가 결국은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제19수>의 ‘일념’은 번거롭고 어지러운 속세를 지향하는 삶으로, 화자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니 그러한 마음이 얼음 녹듯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아무 덴들’ 상관없다고 하는 화자의 생각이 ‘일념’으로 바뀌어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5.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글쓴이는 자신이 겨릅을 얻도록 상사공이 도와준 것은 ‘다만 나의 곤궁함을 불쌍히 여겨서일 뿐이리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상사공이 자신을 도와준 것은 ‘의리’를 해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글쓴이는 헛걸음하지 않고 겨릅을 얻어 오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글쓴이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이욕’에 빠져 ‘의리’를 버린 것이라 생각하여 반성하고 있다. ② 글쓴이는 자신의 아내에 대해 자신이 곤궁함 때문에 치욕을 입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자신이 겨릅을 두고 다른 이들과 경쟁하는 상황에 처할 줄 알았다면 아내가 자신에게 겨릅을 얻어 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겨릅을 구해 오길 권하는 아내의 말에 대해 유택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유택이 취서사에서 겨릅을 얻어 오는 것이 ‘의리’에 부합하지 않고 ‘이욕’을 탐하는 행위라는 염려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유택과 달리 유평은 취서사에서 겨릅을 얻어 오는 행위에 대해 해 보자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겨릅을 얻어 오는 일이 ‘의리’를 심히 해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고 유평이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에서 ‘도무지 할 일 없어’는 자연 속에서 누리는 한가로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를 출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의 ‘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밝아 대’는 모습은 겨릅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 사람들이 경쟁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보기>에 제시된 것처럼 글쓴이가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은 상황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화자는 부귀를 위기로 인식하면 가난하게 살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려는 의지를 엿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나)의 글쓴이는 궁핍해도 의로움을 잃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추구하는 유학자로서의 신념이 의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③ (가)의 화자는 세상의 티끌에 마음을 전혀 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는 세속적 가치에 구애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글쓴이는 다른 이들과 경쟁하며 힘겹게 구해 온 겨를을 버리고 돌아오지 못했는데, 이는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⑤ (가)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숨어 있거나(隱), 세상으로 나가거나(出) 도가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출사와 은거 사이의 고민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의 글쓴이는 의를 잃어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며 이후에는 마땅히 조심하겠다고 다짐하여 성찰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27~30] 문학

[27~30] 현대소설 - 최명익, '무성격자'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근대 지식인이 가진 내면 의식의 추이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는 작품이다. 동경 유학생 출신의 교사인 주인공 정일은 현실적인 삶에서 무게와 고통을 느끼고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을 경멸의 대상이나 귀찮은 존재로 치부한다. 그러나 그는 돈만 아는 속물로 경멸했던 아버지가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활인의 의의를 느낀다. 무성격한 자신의 모습을 고수하는 것이 자기기만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주제] 근대 지식인의 무성격한 모습

27.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서술자는 이야기 밖에서 중심인물인 정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정일이 경험하거나 감각한 일과 정일의 내면으로 사건의 양상이 제한되어 나타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지문에 회상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회상 장면을 병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산판알, 도장, 물그릇, 어항 등의 사물이 지문에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물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③ 정일이 큰 물그릇을 놓고 대접으로 물을 떠서 들이 쏟기를 계속하는 대목에서, 중심인물의 반복적인 동작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일의 반복적인 행동은 병을 앓는 아버지의 바람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내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중심인물의 반복적인 동작을 강조하여 내적 갈등을 표면화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서술자는 중심인물인 정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을 서술하고 있을 뿐, 풍자적 어조를 활용하여 정일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28.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㉔는 ‘용기를 못 내는 자기’와 달리,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아버지가 있는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용팔의 모습을 정일의 관점에서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㉔가 용팔의 행위에 대한 정일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드러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㉔는 용팔이 상속세를 물지 않을 방안을 정일에게 제안하면서 한 말이다. 장인이 위독한 상황인데도 계산을 하며 상속세 물지 않을 궁리를 하는 용팔의 모습에서 이해타산적인 태도가 드러나며, 정일이 이러한 용팔의 모습에 주목했다고 볼 수 있다. ② ㉔에서 용팔이 정일에게 ‘공손히’ 행동하고 존댓말을 하는 상황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용팔이 정일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위치임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④ ㉔에는 용팔이 정일의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중문 안’으로 들어가자, 정일이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에 대해 ‘귀를 기울이’며 주시하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⑤ ㉔에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생활을 회의하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는 정일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29. 작품의 맥락 이해

정답해설 : [A]에서 정일은 상속세를 물지 않기 위해 자신과 공모하려는 용팔의 언행을 접하며 불쾌함과 미움을 느낀다. 나아가 이러한 감정은 ㉔을 일으켜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으로 격화된다. [B]에서 정일은 ‘물을 보기라도 하겠다’는 아버지에게 ‘물그릇’을 놓아 주었다가 ‘어디나 눈 가는 곳’에 물이 보이도록 ‘어항’을 늘어놓고, 아버지가 그로 인한 ㉔에도 만족하지 못하자 ‘흐르는 물’이 보일 수 있게 ‘드리우는 물줄기’를 만드는 행동을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㉔은 ‘물그릇’에서 ‘어항’, ‘드리우는 물줄기’로 심화되는 아버지의 갈망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정일이 용팔의 ‘웃음’을 미워하며 느낀 불쾌감으로 인해 ㉔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에서 ‘황홀한 눈’은 ㉔을 갈구하는 아버지의 눈을 나타낸 것이므로, 아버지가 내비치는 ‘황홀한 눈’으로 인해 ㉔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② [A]에서 정일이 용팔에게 ‘도장’을 내어 준 후 ‘내가 지금 더 심한 심열에 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아 정일이 갈등 끝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㉔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에서 아버지는 ㉔을 느끼려는 ‘동경’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아버지가 사무치는 ‘동경’을 포기함으로써 ㉔이 지속된다고 볼 수 없다. ③ [B]에서 ‘꺼멧게 탄 혀’는 심하게 앓다가 물도 마시지 못하게 된 아버지의 고통을 보여 주는데, 아버지는 ‘어항’이 환기하는 ㉔을 방편으로 삼아 이러한 고통을

줄이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에서 정일이 ‘이러한 심열은 신경 쇠약의 탓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은 정일의 ‘신경 쇠약’으로 인한 결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신경 쇠약’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B]에서 아버지는 ‘심한 구역’ 이후 ‘한 방울 물도 먹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다. 아버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느끼는 갈증을 ㉢을 통해서나마 해소하려 하고 있으므로, ㉢은 ‘심한 구역’ 이후로 아버지가 ‘물’에서 얻고자 하는 육체적 안정에 대한 추구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에서 ㉣은 용팔이 ‘공모’ 요구를 하며 물질 지향적인 태도를 보이는데에 정일이 느낀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용팔이의 ‘공모’ 요구로 인해 표면화된 정일의 물질 지향적인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3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용팔이 정일에게 위임장을 내놓고 도장을 치라고 하면서 웃음을 짓자, 정일은 그러한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 의사를 읽어 내고 불쾌감에서 비롯된 ‘심열’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정일은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에 흐름을’ 깨달으면서도 용팔에게 도장을 건네다가 ‘실없이 웃’는 자신이 ‘더 심한 심열에 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고려할 때 정일이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자신을 의식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정일은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 산판알을 놓으며 이익을 따지는 용팔을 속으로 ‘이 소인 놈!’이라고 하며 경멸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용팔이가 따지는 산판알이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보기>를 참고하면 정일의 이러한 행동은 그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정일은 용팔이 벌이는 행동에 반감을 느끼고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를 불러내고 싶어하지만, 행동을 주저하며 붙잡지 않고 자신이 그를 부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면서 용팔을 불러낼 기회를 놓친 것을 자신이 ‘정말 후회하’는지에 대해 자문하며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모습을 보인다. ㉣ 정일은 ‘애써 살려는 의지력이 없는’ 자신과 달리 고통 속에서 죽음과 싸우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위대한 의지력’을 느낀다. 또한 그런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데, <보기>를 참고하면 정일의 이러한 모습은 상대와의 차이를 인식하는 스스로의 내면마저 대상화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정일은 아버지가 죽음과 싸우는 모습에서 ‘위대한 의지력’을 느끼고 그런 아버지가 ‘물줄기를 바라보’는 눈을 ‘동경에 사무친 황홀한 눈’이라고 표현하며 ‘일찍이 그러한 눈을 본 기억이 없다고 생각’한다. <보기>를 참고하면 주인공의 이러한 모습은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상대가 내비치는 생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파악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31~34] 문학

[31-34] 현대시 - (가) 조지훈, '맹세' / (나) 오규원, '봄'

지문해설 : (가)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에 대한 다짐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에게 임은 '일월'처럼 '거룩한' 존재로 절대적 사랑의 대상이다. 따라서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흰뺨이 되'었지만 부활 때까지, 또 '붉은 마음이 솟아 되'었다 '다시 재'가 될 때까지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임의 손길에 울고 임을 부르며 우는 모습도 임에 대한 간절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작품은 이미지의 대비, 설의적 표현, 유사한 구문의 반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는 특징도 있다.

[주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맹세

(나)는 표면적으로는 봄을 맞아 생명력 넘치는 주변 풍경을 묘사한 작품으로 보이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시인으로서 언어 사용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1연에서는 언어를 통해 대상에 자유를 주려는 시도를 그리고 있다. 봄날에 보이는 '담벽, 라일락, 별, 우리 집 개의 똥'은 화자가 언어로 표현하려는 대상으로, 자유로운 언어를 통해 대상을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그러나 2연에서는 봄이 자유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다고 말하며 언어와 대상이 모두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대상을 언어로 구속하려는 기존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언어의 한계를 밝히고 이에 따라 언어 사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주제] 새로운 언어 사용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

31.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싸늘한 바위'와 '뜨거운 가슴', '어둠'과 '해돋는 아침'처럼 축약적 이미지나 시각적 이미지가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대비는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부각하기 위해 활용한 것일 뿐,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내는 데 활용하지는 않았다. (나)는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존재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대상들의 행위가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대상의 효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봄을 맞은 대상들의 자유로움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는 1연에서 '~ 어찌하리야'와 같은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어떤 시련에도 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화자의 상황 인식을 드러내고, 6연에서 '~ 지니라'와 같은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거룩한 임을 맞이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화자의 상황 인식을 드러낸다. ② (가)는 4연에서 '사랑하는 것'을 모두 잃는 가

정의 상황을 통해, 9연에서는 ‘미워하는 것’을 모두 잇는 가정의 상황을 통해 임을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③ (나)는 ‘저기 저 ~, 저기 저’, ‘~은 내 언어의 ~고, ~은 내 언어의 ~고’, ‘~고 싶은 놈 ~고, ~고 싶은 놈 ~고’처럼 같은 표현을 반복하며 쉼표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운율을 느끼도록 한다. ⑤ (가)는 5연과 10연에 ‘나는 울어라’를 반복하여 부재 하는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드러낸다. 그리고 (나)는 1연의 끝 문장인 ‘그래 봄이다’와 2연의 첫 문장인 ‘봄은 자유다’에 공통적으로 ‘봄’이라는 시어를 넣어 ‘봄’이 곧 자유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다.

3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아픈 가락’은 화자가 임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피리 가락이다. 그런데 이 노랫가락을 내는 피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에서 난 대나무로 만든 것이므로, 이 가락에는 의로운 사람들의 희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가락에 ‘아프’고 ‘사모침’이 담겨 있다는 것에서 가락에 설움이 담겨 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6연에서 화자는 임에게 자랑과 선물을 지니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픈 가락’에 임에게 자랑스럽게 내보일 화자의 자부심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대나무에는 의로운 사람의 피가 스며 있는데, 이는 임의 뜻이 아니라 화자의 뜻이 대나무에 서려 있음을 나타내며 화자를 질책한다고도 볼 수 없다. ④ 화자는 흐느끼는 피리의 아픈 가락에 임이 호응해 주기를 바랄 뿐, 임이 이 가락에 호응해 화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있지는 않다. ⑤ 화자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임이 구천에 사무친 피리 소리를 듣기 바란다.

3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9연에 나오는 ‘붉은 마음’은 부재하는 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마음이 쏠이 되었다가 되살아 다시 재가 될 때까지 못 잊겠다는 것은 영원히 임을 기다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나)에서 봄날의 ‘담벽’은 ‘라일락, 별, 우리 집 개의 똥’처럼 화자가 언어로 표현하려는 주변 사물 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나)의 화자가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 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화자는 지금 세상이 ‘어둠’에 놓여 있지만 죽음을 각오하며 마침내 ‘어둠’에서 벗어나 ‘해돋는 아침’과 같은 밝은 세상을 맞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② (나)의 화자는 봄을 맞아 자신과 모든 대상들이 자유를 누리기를 바란다. 그 대상은 자신의 언어를 통해 자유를 얻은 ‘담벽, 라일락, 별, 개똥’이다. 따라서 ‘자유

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구르는 것은 화자가 지향하는 자유로운 세계의 대상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③ (가)의 화자는 '꽃송이'를 창백하다고 여겨 자신의 입을 맞추려 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저 담벽'이 '서고', '저 라일락'이 '꽃이 되고', '저 별'이 '반짝이고', '저 우리 집 개의 똥'이 구르는 모습에 주목해 각각의 대상이 지닌 개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④ (가)의 화자는 '창백한 꽃송이'를 위해 '한방울 피마저 붙어 넣'겠다는 것은 꽃송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나)의 화자는 '꽃피고 싶은 놈 꽃피고 ~ 아지랑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는 것처럼 대상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도록 하여 마침내 이들과 더불어 '마음대로 뛰'며 자유를 누리려 하고 있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해설 : 이 작품을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을 탐구한 작품이라고 본다면, 2연의 처음에 나오는 '봄은 자유다'라고 한 후 ㉠에서 봄을 '지옥이라고 하자.'는 것은 '봄'을 하나의 언어만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이처럼 ㉠은 언어에 의해 대상이 구속되는 기존의 언어 관습에서 벗어나 언어와 대상 모두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탐구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담벽, 라일락, 별, 우리 집 개의 똥 하나'라는 대상을 자신만의 자유로운 언어로 표현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자신의 언어 사용 방식이 언어에 대상이 구속되는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따르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다. ② ㉠은 표현할 대상에 자유를 주기 위해 이를 표현할 언어에도 자유를 부여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언어를 통해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까지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④ ㉠은 언어와 상관없이 대상은 변하지 않으므로 언어로 대상을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새로운 언어 사용 방식의 필요성을 드러낸 것이다. ⑤ ㉠은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났을 때 획득한 자유의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새로운 언어 사용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일 뿐, 자신이 규정한 의미에 따라 대상이 통제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③ 36. ⑤ 37. ② 38. ④ 39. ④ 40. ② 41. ① 42. ⑤ 43. ⑤ 44. ③
45. ①

[35~36] 언어

[35~36]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

지문해설 : 이 글은 중세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 및 부사격 조사가 쓰이는 일반적인 양상과 예외적인 양상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1문단에서는 선행 체언에 따라 달리 결합하는 관형격 조사에 대해 다루는데, 특히 후행하는 용언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어 주격 조사처럼 해석되는 관형격 조사 ‘의’가 일반적인 결합 원칙에서 벗어나서 쓰인 사례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2문단에서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선행 체언의 음운적 환경에 따라 달리 쓰이는 양상을 설명하며, 특히 일부 특수한 체언들에서는 ‘애/에/예’가 아닌 ‘이/의’가 부사격 조사로 쓰인 사례도 제시하고 있다. 3문단에서는 관형격 조사가 그 구성 성분으로 분석되는 독특한 부사격 조사가 있음을 ‘이그에(에게)’와 ‘스그(께)’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주제] 중세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의 예외적 사용 양상

35. 중세 국어의 문법

정답해설 : ㉔의 ‘나조히(나조ㅎ + 이)’는 ‘저녁의’가 아니라 ‘저녁에’로 해석된다. 이때의 ‘이’는 일부 특수한 체언들과 결합하는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㉔은 ‘뉘’의 끝음절 ‘ꉑ’에서 반모음 ‘ㅣ’가 확인되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로 ‘애/에’가 아닌 ‘예’가 쓰인 경우이다. 참고로, 중세 국어의 ‘개, 𑖅, 𑖆, 𑖇’는 현대 국어와 달리 이중 모음이었다. ㉔ ㉕의 ‘우ㅎ’는 모음 조화에 따라 부사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우희’가 된다. ㉔ ㉕의 ‘이그에’는 관형격 조사 ‘이’에 ‘그에’가 결합되어 부사격 조사로 쓰인 경우라고 3문단에서 설명하였다. ㉔ ㉕의 ‘께’는 중세 국어 ‘스귀’가 현대 국어로 이어진 것임을 중세 국어에서 존칭의 유정 명사 ‘어마님’에 ‘스귀’가 쓰였다는 예를 통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존칭의 유정 체언에는 관형격 조사 ‘스’이 결합하는 원칙이 있었다는 1문단의 설명을 통해서도 ‘께’가 현대 국어에서 존칭 체언에 사용되는 것은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 ‘스’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평칭의 유정 체언과 결합하는 ‘이그에(에게)’에서 평칭의 유정 체언과 결합하는 관형격 조사 ‘이’가 분석되는 것과 비교가 된다.

36. 중세 국어의 문법

정답해설 : ‘공자의 남기신 글’은 ‘공자가 남기신 글’이라는 의미이므로 ‘孔子(공자)의’는 ‘기티신’의 의미상 주어이다. ‘孔子(공자)’가 존칭의 유정 체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스’이 결합하여야 하지만 ‘의’가 결합하였다. 따라서 예외적 결합이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㉔ ‘수플’이 무정 체언이기 때문에 ‘스’이 결합한 것이다. ㉔ ‘눔’이 평칭의 유정 체언이고 끝음절 모음(ㆍ)이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이’가 결합한 것이다. ㉔ ‘世界(세계)스’를 ‘보샤’의 의미상 주어로 볼 수 없다. 또한 ‘世界(세계)’가 무정 체언이기 때문에 ‘스’이 결합한 것이어서 예외적 결합으로 볼 수도 없다. ㉔ ‘이 사름미’가 ‘잇논’의 의미상 주어이기는 하지만, ‘사름’이 평칭의 유정 체언이고 끝음절 모음(ㆍ)이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이’가 결합한 것이어서 예외적 결합이 아니다.

37. 문장의 짜임과 문법 요소

정답해설 : ‘선생님께서 여전히 학교 근처에 사시는지요?’는 현재 시제가 쓰인 문장이고, ‘살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㉔, ㉕가 모두 실현되었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㉔ ‘그 집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자란다.’는 ‘-나다’를 통해 현재 시제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란다’는 주어를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㉔는 실현되지 않았다. ㉔ ‘산중에 있으므로 여기는 도시보다 조용합니다.’는 현재 시제가 쓰인 문장이다. 그러나 연결 어미 ‘-으므로’가 쓰인 이어진문장으로, 안긴문장은 없다. 따라서 ㉔는 실현되지 않았다. ㉔ ‘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로 마음먹었니?’에서는 안긴문장 ‘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가 전체 문장의 부사어로 기능한다. 그러나 ‘-었-’을 통해 이 문장에는 과거 시제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㉔는 실현되지 않았다. ㉕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 책에 곰팡이가 슬었어.’에서 안은문장 전체의 서술어 ‘슬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참고로 안긴문장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의 서술어 ‘받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그러나 안긴문장은 전체 문장의 부사어가 아니라 관형어로 기능한다.

38.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해설 : 제시된 단어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 단어[표준 발음]	㉔ 음절의 끝소리 규칙	㉕ 자음군 단순화	㉖ 된소리되기
넓디넓다[널띠널따]	×	○	○
높푸르다[놉푸르다]	○	×	×
늦깎이[늘까끼]	○	×	×
닭갈비[닥갈비]	×	○	○
쑥대밭[쑥때밭]	○	×	○
앞장서다[압짱서다]	○	×	○
웁다[읍따]	○	○	○
있다[일따]	○	×	○
짓밟다[질뽱따]	○	○	○
흙빛[흑뽁]	○	○	○

따라서 ㉔, ㉕, ㉖가 모두 일어나는 ㉗로 분류되는 단어는 ‘웁다[읍따], 짓밟다[질뽱따], 흙빛[흑뽁]’이고, ㉔, ㉖가 일어나는 ㉘로 분류되는 단어는 ‘쑥대밭[쑥때밭], 앞장서다[압짱서다], 있다[일따]’이다.

정답 ④

39. 담화의 특성

정답해설 : ㉔의 ‘왔어’는 정수가 화자인 민수가 있던 장소로 이동했음을 나타내지만 ㉕의 ‘왔었구나’는 정수가 화자인 희철이 있던 장소로 이동했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㉗의 ‘내일’과 ㉔의 ‘어제’는 둘 다 발화 시점에 따라 언제인지가 결정된다. ② ㉔의 ‘네 말’은 이전 발화를 가리킴에 비해 ㉔의 ‘저기 저’는 ‘○○ 서점’을 가리킨다. ③ ㉔의 ‘정수’는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지시 대상이 고정되지만 ㉕의 ‘네’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담화 참여자에 따라 지시 대상이 결정된다. ⑤ ㉔의 ‘우리’는 ‘민수, 희철’을 가리키고 ㉕의 ‘우리’는 ‘기영, 민수, 희철’을 가리킨다.

[40~43] 매체

40. 매체의 정보 유통 방식

정답해설 : 주로 음성 언어로 전달되는 라디오 방송의 특성상 본방송을 중간부터 청취한 수용자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진행자는 이러한 청취자를 위하여 앞부분의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진행자의 두 번째 발화 ‘지난주부터 ~ 소개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를 통해 지난주 방송과 현재 진행되는 방송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진행자의 여섯 번째 발화 중 ‘나머지 등대를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 ~ 완주 기념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를 통해 시간상의 제약으로 방송에서 전달하려는 정보를 선택하여 조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진행자의 일곱 번째 발화 중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 손잡이가 있습니다.’를 통해 청각적 정보만 접하는 수용자를 위해 시각적 정보를 음성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진행자의 네 번째 발화 중 ‘많은 분들이 실시간 문자로 ~ 물으시네요. ~ 다시 안내해 주시겠어요?’와 다섯 번째 발화 중 ‘실시간 댓글로 ~ 있으시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를 통해 실시간 댓글과 문자를 바탕으로 이어질 정보를 조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1.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정답해설 : 여행가의 다섯 번째 발화 중 ‘그런데 행복도 등대나 ~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를 듣고 진행자는 ‘스탬프가 등대 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경우도 있다는 거군요.’라고 하였다. 따라서 행복도 등대나 기쁨향 등대에서는 스탬프를 찍을 수 없다는 글을 쓴 ‘새달’은 방송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달’이 이해한 바를 ‘알콩’은 등대 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 스탬프가 있다고 들었다는 내용의 댓글로 수정해 주고 있으며, ‘사슴’은 스탬프가 있는 곳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내용의 댓글로 수정해 주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방송 내용에 대한 ‘새달’과 ‘알콩’의 공통된 생각과 ‘사슴’이 이에 동조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새달’이 방송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아쉬운 마음을 담아 글을 썼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감정에 ‘알콩’과 ‘사슴’이 정서적인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새달’이 방송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을 ‘알콩’이 바로 잡아주고 있으며, ‘사슴’은 ‘알콩’의 말에 동조하면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⑤ 방송 내용에 대한 ‘새달’과 ‘알콩’의 긍정적 감정은 드러나지 않으며, 따라서 긍정적 감정이 ‘사슴’의 댓글로 인해 부정적 감정으로 전환되는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42.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정답해설 : ㉠은 여행가의 말 중에서 ‘천사의 날개와 선박을 형상화한 △△ 등대’를 가져와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이 제목은 △△ 등대의 특징과 주소, 스탬프 위치, 볼거리, 먹을거리, 재밌거리를 다룬 ㉠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에는 여행가가 말한 여행의 순서와 주의 사항이 모두 담겨 있다. 따라서 여행가가 제시한 여행의 순서와 주의 사항을 모아 하나의 슬라이드로 구성하는 고려 내용은 적절하다. ② ㉠에는 여행가가 말한 여행 순서가 화살표를 사용하여 차례대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여행가가 제시한 여행 순서를 구분하고 차례가 드러나게 화살표를 사용하자는 고려 내용은 적절하다. ③ ㉠에는 여행의 순서가 글뿐만 아니라 관련된 그림으로도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여행가가 소개한 여행의 순서와 관련된 주요 소재를 그림 자료로 보여 주자는 고려 내용은 적절하다. ④ ㉠에는 △△ 등대의 특징과 주소, 스탬프 위치, 볼거리, 먹을거리, 재밌거리 등 여행에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다. 따라서 여행가가 언급한 먹을거리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추가하자는 고려 내용은 적절하다.

4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의 ‘말씀드린’에 쓰인 ‘말씀’은 화자인 여행가가 자신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와 같이 남의 말을 높여 이를 때에도 ‘말씀’이 쓰이지만 ㉡의 ‘말씀’은 이러한 경우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의 ‘시작합니다’에는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 ‘-습니다’가 쓰였다. 하십시오체는 상대방을 아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다. 따라서 진행자가 방송을 (보고) 듣는 불특정 다수의 청자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의 ‘모셨습니다’에는 특수 어휘 ‘모시다’가 쓰였는데, 이는 객체인 ‘여행가 안○○ 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③ ㉣의 ‘선택하셔서’에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쓰였는데, 이는 ‘선택’의 주체가 방송을 보고 듣는 청자들임을 고려한 높임 표현이다. ④ ㉤의 ‘있으시답니다’에는 ‘있으시다’가 쓰였는데, 이는 높임 대상과 관련되는 ‘궁금증’을 높임으로써 주체인 ‘6789 님’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표현이다.

[44~45] 매체

44. 매체의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

정답해설 : (가)의 ‘2. 기기 연결 방법’에서는 휴대 전화의 메뉴 중에서 선택해야 할 내용을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다르게 표시하여 눈에 잘 띄도록 하였다. 따라서 앱에 기록할 정보(성별, 키 등)의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다르게 표시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 기기 구성 정보’에서는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기기의 구성 정보를 직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달하였다. ② ‘2. 기기 연결 방법’에서는 기기를 휴대 전화와 연결하는 방법을 단계에 따라 순서대로 안내하였다. ④ ‘3. 기기 기능 안내’에서는 ‘몸무게 측정, 개인 데이터 분석, 자동 누적 기록, 기타 기능’의 항목을 나열하여 배치하고, 궁금한 내용은 해당 기능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사용 설명서의 하단에는 사용 설명서의 버전 정보와 수정 시점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45.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과 활용

정답해설 : (나)의 ‘2023년 4월 15일’ 대화에서 ‘시윤’은 ‘할머니’에게 (가)의 내용 중 ‘4. 기타 안내’에 있는 ‘기기 연결 동영상 바로 가기’를 누르고 따라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2023년 5월 6일’ 대화에서 ‘시윤’은 (가)의 내용 중 ‘3. 기기 기능 안내’의 ‘자동 누적 기록’과 관련한 기능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내용이 (나)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정보를 선별하여 유통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의 ‘할머니’와 ‘시윤’이 주고받은 내용에서 (가)의 수정 과정과 관련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③ (가)는 전자 문서로 된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성을 지닌 매체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질문하여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가)가 아니라 (나)의 특성에 해당한다. ④ (가)의 ‘3. 기기 기능 안내(자세한 안내는 해당 기능을 클릭)’과 ‘4. 기타 안내’를 통해, (가)도 사용자가 하이퍼링크를 통해 외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2023년 5월 6일’ 대화를 보면 ‘시윤’이 ‘2023년 4월 15일’ 대화 중 ‘할머니’가 쓴 글의 내용을 불러와 그 글에 ‘[답장]’을 다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작성하여 이전 내용을 환기하였다. (가)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찾아볼 수 없다.